한국,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발행

246개 기관 발행 시험·교정 성적서 32개국 통용 … 4월1일 시행

한국에서도 해외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국제공인 시험성적서와 교정(校正)성적서를 발급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맡고 있는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우리 나라의 국가공인 시험·교정기관들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 모두를 포함한 세계 32개국에서 통용되는 국제공인 시험성적서와 교정(校正)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2월 20-21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국제시험소 인정기구(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의 인정(認定)정책위원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18개국 21개 인정기구 대표 25명이 참가해 상호인정협정체결국이 공동 사용하는 마크를 채택하고, 마크를 부착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Internationally Recognized Accredited Testing Report)를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간에 통용하기로 합의했다.

국제공인마크를 제정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의 공인시험성적서가 국가별 국가공인 인정마크를 부착해 사용했으나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 수요자들은 해당 성적서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기관 또는 교정기관에서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국가인정기구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KOLAS도 해외로부터 하루 평균 5건 이상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문의에 대해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험(교정)성적서에 국제공인 인정마크를 부착하게 되면 현재 국제적으로 공인된 32개국 41개 인정기구에서 인정한 2만여개 시험 및 교정기관들에 대해 국제적으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받은 기관 인지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돼 수요자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ILAC 상호인정 협정 체결국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홍콩, 싱가폴, 타이완, 인도네시아, 타이, 이태리, 브라질, 남아공, 중국, 베트남,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체코, 핀란드, 인디아, 노르웨이,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스페인 등 32개국이다.

국가공인마크(현행)

국제공인마크(변경)

기술표준원은 한국에서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의 국제공인 시험 및 교정기관에서 발행하는 모든 성적서가 사실상 전 세계에서 용이하게 통용돼 해외에 가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복시험·교정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이 절감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국제공인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145개 시험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21개 교정기관 등 246개 기관이다.

기술표준원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에서는 국제공인성적서 발행을 계기로 KOLAS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의 명칭을 국가공인시험(교정)기관에서 국제공인시험(교정)기관으로 변경하고, KOLAS는 국제공인마크의 도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법에 의한 표장등록을 2002년 2월21일자로 마친 상태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27>